



차이나

CHINA Industrial Policy Brief

산업정책 브리프



한국무역협회 베이징지부

전화 : 86-10-6505-2671/3

이메일 : beijingk@kita.net

1 리커창 총리, 국무원 회의에서 부가가치세 환급·소비 활성화 계획 발표

- 4월 13일, 국무원 총리 리커창(李克强)은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무역업체 상대로 부가가치세 환급을 확대하고, 또한 소비 진작으로 경제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힘
- 부가가치세 환급관련 구체적인 조치는 △가공무역 업체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확대 △부가가치세 환급 절차 및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고 환급 처리 기간을 평균 7일에서 6일로 단축 △지속적으로 무역 경영환경을 최적화시켜 수출 화물의 통관 효율 향상 △해외 창고 발전을 지원하고 국경간 전자상거래 반품을 용이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 등임
- 소비 활성화를 추진하는 조치는 △지방정부에서는 지원을 확대하여, 요식업, 소매업, 관광, 항공 등 업종에 종사하는 업체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소비시장을 안정화시킴 △의료건강, 실버산업, 육아 등 서비스 소비를 촉진 △각 지역별로 개인의 자동차 구매 제한 조치를 완화시켜, 자동차 소비를 추진. 특히 신에너지 자동차 소비 및 충전소 건설을 지원하는 것 등 내용이 포함됨

자료원 : 국무원

http://www.gov.cn/premier/2022-04/06/content_5683773.htm

2 인민은행, 금융지원 확대계획 23개 조치 발표

- 4월 18일, 중국인민은행 및 국가외환관리국은 공동으로 <코로나 19 방역 및 경제발전을 위한 금융서비스 강화에 대한 통지문>(《关于做好疫情防控和经济社会发展金融服务的通知》)을 발표하여, 23개 조치로 구제금융, 원활한 국민경제의 순환, 대외무역 수출 등 세 가지 방면에서 금융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밝힘
- 구체적인 조치로 △개인 주택대출의 대출금리를 합리적으로 확정하고, 부동산 개발 및 건설업체의 합리적인 투자수요를 지원하여,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 △코로나19로 영향을 받은 개인에게 금융기관 대출 확대 및 대출금 상환 연기 조치 실시 △창업담보대출 지원책을 통해 다양한

국민 금융상품 및 서비스 출시 △지방정부의 인프라 투자를 지원하고, 투자 플랫폼 회사의 합리적인 투자 수요를 법적으로 보장 △경영난에 시달리는 물류업체 및 화물운전기사 대상 대출금 상환 연기 △택시기사, 인터넷 쇼핑몰 운영 자영업자 및 영세사업자 대상 대출한도 확대 등임

- 또한 인민은행은 거시경제 전반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4월 중순까지 6천억 위안(한화 약 116조 원)의 이익을 정부 재정으로 이전했다고 밝혔으며, 올해 총 1조 1천억 위안(약 213조 원)의 이익을 보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함

자료원 : 중국인민은행

http://www.gov.cn/xinwen/2022-04/18/content_5685923.htm

<https://finance.sina.com.cn/china/gncj/2022-04-19/doc-imcwiwst2660163.shtml?cref=cj>

3 中 국무원, 〈내수시장 확대 가속화에 관한 의견〉 발표

- 4월 15일, 국무원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내수시장 확대 가속화에 관한 의견〉(《中共中央国务院关于加快建设全国统一大市场的意见》)을 발표하여, 중국 내수시장 확대 및 글로벌 시장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국내 시장 및 글로벌 시장의 상호 연결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힘
- 〈의견〉은 내수시장 확대를 위한 '고효율 및 표준화', '공정 경쟁', '개방 확대' 등 세 가지 키워드를 제시했으며, 동시에 각종 지방 보호주의·불공정 경쟁·불필요한 정책 등 내수 시장 확대를 저해하는 장애물들을 제거해야 한다고 밝힘
- 의견에서는 또한 내수시장 확대를 위한 5가지 조치인 △시장 인프라 제도 통일 △시장 인프라 상호 연결 △통일된 자원 시장을 구축 △상품 및 서비스 시장의 통일을 추진 △공정하고 통일된 시장 관리·감독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힘

자료원 : 국무원

http://www.gov.cn/zhengce/2022-04/10/content_5684385.htm

http://www.qstheory.cn/qshyjx/2022-04/11/c_1128549604.htm

4 中 증권감독관리위, 3년 이상 연속 경영 기업에 한해 상장허가 실시

- 4월 8일,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투자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경쟁을 유지하기 위해 제196호령(주식 발행에 관한 상장 관리 방법에 대한 수정 의견)(《关于修改〈首次公开发行股票并上市管理办法〉的决定》)을 신규로 발표했으며, 발표 당일부터 공식적으로 시행함

- 동 관리방법은 총 6장 59개 조항으로 총칙, 발행조건, 발행절차, 정보공개, 감독관리 및 처벌, 부칙으로 구성됐으며, 상하이 및 선전의 주식거래소 주식 발행 심사 제도를 기반으로 증권 주거래 시장(主板市场), 중국 나스닥 커창판(科创板), 중국 중소 벤처기업 전용 창예판(创业板) 등의 주식 발행인에 대하여, 연속 3년 이상 경영한 기업에 한해 상장 허가를 실시한다는 공평하고 통일된 기준을 적용함
- 제9조 변경사항 △변경 전 : 발행인은 주식회사가 설립된 후 3년 이상 연속 경영 기준을 충족해야 상장이 가능하지만 ‘국무원의 특별 비준을 받은 기업은 제외함’ △변경 후 : 발행인은 주식회사가 설립된 후, 3년 이상 연속 경영 조건을 충족해야 상장 가능함

자료원 :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

<http://www.csrc.gov.cn/csrc/c101953/c2322375/content.shtml>

5 中 公업정보화부, <신에너지 자동차 안전체계 구축 지도의견> 발표

- 4월 8일, 공업정보화부, 교통운수부, 시장감독관리총국은 신에너지 자동차 산업의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공동으로 <신에너지 자동차 안전체계 구축 지도의견>(关于进一步加强新能源汽车企业安全体系建设的指导意见)을 발표함
- 동 지도의견은 총 7장 22개 조항으로 구성됐으며, 구체적인 내용으로 △신에너지 자동차 기업의 안전체계 구축을 가속화하고, 기업의 안전관리 메커니즘, 제품 품질, 운행 모니터링, 애프터서비스, 사고 대응 조치, 사이버 안전 등 방면의 신에너지 자동차 안전 수준을 향상시키고 신에너지 자동차 산업의 발전을 촉진 △동력 배터리 안전, 충전 안전, 소방 안전 등 제품 안정성을 규범화 △생산 품질 관리를 엄격히 시행 △신에너지 자동차의 유지보수 서비스를 최적화 △결함이 발견된 제품에 대해 즉시 생산·판매를 중단하고, 리콜을 실시하는 것 등임
- 한편, 중국자동차협회에 따르면, 3월 중국의 신에너지 자동차 생산 및 판매량은 각각 46만 5,000대, 48만 4,000대로 전월 대비 25.4%, 43.9% 증가한 것으로 집계됨

자료원 : 공업정보화부

https://wap.miit.gov.cn/zwgk/zcwj/wjfb/yj/art/2022/art_7393e4d7742d41ce82e5c0e5df991303.html

<http://www.cinic.org.cn/xw/schj/1272895.html>

6 海관총서, 신규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양식 발표

- 4월 13일, 해관총서는 33호 공고문 <한·중FTA 원산지증명서 양식에 대한 공고문> (关于调整中国—韩国自贸协定项下原产地证书格式的公告)을 통해 한·중FTA 원산지증명서 양식을 신규로 발표하였으며, 6월 12일부터 공식적으로 효력이 발생함

- 신규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는 1건당 아이템 기재품목 수에 대해 기존의 최대 기재 건수 20개에서 기재 건수 무제한으로 변경됨
- 한편 중국 상무부 통계에 따르면, 2022년 1월 27일 기준 對한국 수출을 위해 발급한 한·중 원산지증명서는 368만 6,000건으로, 한중FTA 발효(2015년) 이래 연평균 8.6% 증가한 것으로 집계됨

자료원 : 해관총서

<http://www.customs.gov.cn/customs/302249/2480148/4287282/index.html>

http://fta.mofcom.gov.cn/article/chinakorea/koreagfguandian/202101/44381_1.html

7 中 관세세칙위원회, <미국산 상품 제7차 추가관세 부과 배제 연장 리스트> 발표

- 4월 14일,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미국산 상품 제7차 추가관세 부과 배제 연장 리스트>(中国对美加征关税商品第七次排除延期清单)를 발표하여, 2022년 4월 16일에 만기되는 첩부에 열거한 95개 상품에 대하여 2022년 4월 17일부터 2022년 11월 30일까지 지속적으로 배제 기한을 연장하고 추가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고 발표함
- 해당 리스트에는 윤활유(HS 코드 : 2710.1991), 광물유(HS 코드 : 3403.1900), 사료용 생선가루(HS 코드 : 2301.2010), 앵두나무 목재(HS 코드 : 4407.9400), 유압모터(HS 코드 : 8412.2910), 플라즈마 절단기(HS 코드 : 8456.4010), 목화 채집기(HS 코드 : 8433.5920) 등 품목이 있음

자료원 : 재정부

http://gss.mof.gov.cn/gzdt/zhengcefabu/202204/t20220415_3803082.htm

8 상하이시, 자동차·반도체·바이오 의약 등 666개 기업 조업 재개

- 4월 15일, 공업정보화부는 상하이시경제정보위원회와 공동으로 <상하이시 공업기업 조업 재개 방역 안내문 제1버전>(《上海市工业企业复工复产疫情防控指引(第一版)》)을 발표하여 순차적으로 자동차, 반도체, 바이오의약 등 중점 산업 666개 기업의 조업 재개를 보장하겠다고 밝힘
- 이중, 자동차 산업관련 업체수는 251개사로 37.7%를 차지했고, 의료기업 184개사로 27.6%를 차지함. 반도체 및 집적회로 업체는 83개사로 12.5%를 차지, 에너지화학이 66개사로 10%를 차지했으며, 나머지는 식품 및 가공업체 17개사, 항공우주 9개사인 것으로 집계됨

- 한편, 상관신문(上观新闻)에 따르면, SMIC(中芯国际), 화홍(华虹), 상하이 신마오(上海新昇), ASMC(积塔半导体), ASML 등 대부분 반도체 기업들은 생산 가동 상태이지만, 200여 개 자동차 산업관련 업체들은 여전히 조업 재개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힘. 예를 들어 상하이 다이메이 자동차(上海岱美汽车) 관계자는 회사가 666개 중점 기업 조업 재개 명단에 속해 있으나, 대부분 근로자들이 자택 격리돼 있고, 출근 조건에 부합되는 PCR 음성결과 근로자가 사내 40% 미만인 상태라고 밝혔음

자료원 : 공업정보화부

<http://www.cacs.mofcom.gov.cn/cacscms/article/ckys?articleId=172726&type=1>

<https://www.163.com/dy/article/H584JREL0511838M.html>

9 지린성(吉林省), 기업애로 해소 위해 15개 조치 마련

- 4월 18일, 지린성(吉林省) 시장감독관리국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조업재개를 추진하기 위한 15개 조치를 발표함
- 15개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은 △지린성 각 지역별 시장감독관리국은 온·오프라인으로 전문적인 등록 창구를 설립하여, 기업의 편이를 도모 △코로나 19로 영향을 받은 식품 생산 및 판매기업이 관련 등록 변경 및 허가를 신청 할 경우, 온라인으로 접수하고, 전자허가증을 발급 △특종장비 생산 기업에 대한 허가증 발급기간을 연장 △기업에 대한 행정절차를 간소화시키고, 코로나19 여파로 회계연도 결산검사를 놓친 기업에 대하여 행정처벌을 면제 △2022년 6월 30일전까지 조업재개를 시작하는 세제, 물티슈 등 청결용품 생산 기업에 대해 성(省)급 검측기관은 행정 수수료를 50%절감 △지적소유권 서비스 강화 △코로나19로 운영을 중단했던 놀이기구 운영업체에 대해 무료로 놀이기구 점검 기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등임
- 또한 당일 지린성 방역센터는 뉴스 브리핑에서, 4월 18일 기준 지린성의 500개 중점기업 중 4개사를 제외한 496개 기업은 모두 조업 재개에 나섰다고 밝힘. 창춘시(长春市) 소재 1,331개 규모이상 공업기업의 조업재개 비율은 70% 가까이에 달했으며, 중국 국유 제일 자동차 (中国一汽·FAW) 공장은 모두 생산을 가동한 상태라고 밝힘

자료원 : 중국경제망

<https://baijiahao.baidu.com/s?id=1730433287331543800&wfr=spider&for=pc>

http://district.ce.cn/newarea/roll/202204/19/t20220419_37507418.shtml